

광주시, 공공의료원 설립부지 선정 난항

공·사유지 등 검토했지만 적합지 없어 사업 지연 우려 정부·정치권 안팎,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필요성 공감

광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공공의료원 설립 부지 선정에 착수했지만 적합지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자칫 사업 추진의 결실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전남대학교 병원 산하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바로 옆 부지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신축 의견 등에 밀려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가칭 시립 공공의료원 설립 부지 선정과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감염병·재

난·응급 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공 보건으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광주는 17개 시·도 중 울산, 대전과 함께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으로 꼽힌다. 시는 정부의 권역·지역 진료권 구분에 따라 광산구·서구 구역에 1000억원을 들여 일부 읍면 병상을 포함해 250병상 규모를 갖추겠다는 청사진을 지난 4월 제시했다. 시는 몇 개 대상지를 물색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최종 예정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 의료원 설

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을 추경에서 확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 구, 도시공사 등 소유 부지는 물론 사유지 중에도 접근성, 가격 등 요건을 두루 충족하는 곳을 찾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의료계에선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필요한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행정부 투융자 심사, 복지부 사업 신청, 예산 확보 등을 거쳐 2023년 1월 설계에 들어가 2024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지만, 부지 확보에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 공공의료원 설립

에 필요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보다 먼저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해온 대전시는 예타 과정만 2년 넘게 보냈으며, 아직까지 결과를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대정부 질문에서 면제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평상시 통상적인 지방 의료원 역할을 하고 감염병 등 확산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행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병역법 개정 추진...BTS 입대 연기 가능할 듯 병무청 "문체부 장관 추천 대중문화 우수자 징·소집 연기"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여부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병역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병무청은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지만, 징집 및 소집 연기는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모종의 병무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씨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우선 한국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강조한 뒤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스티브 유는 송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에 활동하는 동안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라고 설명했다.

모 청장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씨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부모도 자녀 체벌 못한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 부분도 삭제했다.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민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민과 함께한 광주YMCA 100년 기념 광주 YMCA 창립 100주년 기념식이 13일 오후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서 열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고택·종갓집 문화 체험하세요"

전남도, 내년 고택 활용사업 5곳 선정...국비 3억4400억원

전남도는 문화재청 주관 '2021년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공모에 도내 4개 시·군 5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3억44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고택·종갓집의 문화를 가깝고 즐거운 마음으로 체험하면서 증가문화를 비롯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일반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첫 시작된 사업이다.

문화재청은 내년 지원대상으로 전국 12개 시·도에서 총 40개 사업(국비 25억원)을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전남도는 5개 사업이 선정돼 지역 증가문화 발전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내년 추진될 사업 프로그램은 ▲나주 남파고택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증가역사문화 배우기' ▲규례 운조루의 '운조루

문화리뷰 프로젝트' ▲강진 영랑생가의 '더 샵 252 영랑생가' ▲강진 정약용 유적을 활용한 '명불당 유배지에서 길을 찾다' ▲영암 죽림마을 옛담의 '영암 구림마을 증가여행' 등으로,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추어 추진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해 공모에도 이미 4개 프로그램이 선정된 바 있으며, 국비 포함 총사업비 3억8600만원을 투입해 현재 나주, 규례, 보성, 영광에서 사업을 펴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규모가 확대돼 지방비 포함 총사업비 8억6600만원 규모로 진행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도불균형 위기의 광주·전남

▶1면에서 계속

먼저 대상에 남북내륙철도(사업비 4조7000억원), 충북선 철도고속화(1조5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등이 포함됐으며,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호남권의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사업(1조7000억원)이 간신히 예타 재조사를 거쳐 통과한 정도였다.

23개 면제 사업 가운데 광주는 인공지능(AI) 중심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 사업(예산 4000억원), 전남은 수산식품 수출단지(1000억원), 서남해안관광도로(알해·화일 등, 1조원) 등 2건, 전북 새만금국제공항(8000억원),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등 2건이 포함됐다. 전체 건수로는 5건, 액수로는 2조5000억원이다.

이에 비해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영남지역이 9조2000억원에 달했고,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지역은 7조원의 사업이 면제를 받았다. 영남에 비해 호남의 예타 면제 규모는 4분의1 수준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4000억원에 불과해 경남(4조7000억원)에 비하면 10분의1도 안 된다. 수십년 동안 국가계획은 물론 예타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좌초를 맞았던 광주·전남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은 1967년부터 2018년까지 61년 동안 지방재정을 분석해 과거 재정 불균형이 현재 국가불균형의 원인이었음을 밝혀냈다. 61년간 모두 3201조원의 지방재정(일반회계) 가운데 수도권이 36.8%(1179조원), 영남권이 27.7%(885조원)을 차지하고, 호남권은 고작 15.7%(502조원)에 그쳤다. 기반시설(SOC) 및 산업경제 관련 지출은 61년 동안 627조원이 집행됐으며, 이 가운데 수도권이 36.3%(227조원), 영남권이 28.8%(180.6조원)을 가져갔다. 호남권은 14.0%(87.5조원)였다.

이 같은 계속되는 국가 불균형 시책으로 인해 2019년 호남권 평균 소득은 5311만원으로 수도권(6243만원), 충청권(5806만원), 영남권(5382만원)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AI 중심도시,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등 지역의 미래전략산업 및 핵심산업에 대한 정부부처의 국책·시범사업의 전략적인 집중, 공공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집약 배치, 국가 재정의 차등 배분, 예타 면제 정례화 등의 후속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낙후 지역인수록 정부 주도의 선발투자와 유인 투자로 민간자본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호남권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바로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대출·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 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 : 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기사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적합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CCC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라남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전라남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0. 10. 13
전라남도지사

1. 목적 : 전라남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내실 있는 재건대책을 수립하기 위함.
2. 개최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0. 10. 28(수) 14:00 ~ 17:00 / 장소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2층 컨벤션홀
3. 계획의 개요 : ·과제기간 : 2016. 2. ~ 현재 ·과제대상 : 전라남도 전역(1,235개동) ·대상지역 : 하천내수·사면토사·해안·바람·기타 등 7개 유형
4. 계획안 열람 및 사전 의견제출 방법 : ·열람장소 : 도 자연재난과 및 시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담당부서 ·열람기간 : 공고일부 2020. 11. 04.까지 ·의견제출 : 공고일부 2020. 11. 04.까지 서면제출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라남도 자연재난과(061-286-3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매면법 및 주권제출 공고

당사는 2020년 10월 14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1주의 금액 500원의 주식 10주를 병합하여 1주의 금액 5,000원의 주식 1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주주권을 가진 사람은 본 공고제일로부터 1개월 내에 주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4일
주식회사 보충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온천1길 85
대표이사 강중욱

자본감소공고 정정 공고

본지 2020년 9월 7일자 제재민(주)유호종합개발의 자본감소공고 내용 중 자본감소공고 "자본감소공고"로 오기 및 주권제출공고"로 오기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제일 익일부터 1월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을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제일 익일부터 1월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주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제일 익일부터 1월이내에 주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정정 공고함.

산행안내

10월17일(토)
▲광주금당산악회 10월17일(토) 충북 포암산·만수봉·용암산, 봉선동 롯데마트 앞 06:10, 진월동식재마트 앞 06:20, 영주체육관 06:30, 한국병원 앞 06:40, 문예회관정문 06:50, 비엔날레 주차장입구 07: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 양 김명규(561001-XXXXXX)
·최후주속 : 광주 서구 화정로49번길 15-1 1동 402호(양준동)
피상속인 양 김명규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년 단3619호로 신청하여 2020년 10월 6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지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0월 14일
·상속인 : 김윤숙(570822-XXXXXX)
광주 서구 화정로49번길 15-1 1동 402호(양준동)
·신고기간 : 2020. 10. 14. ~ 2020. 12. 23.
·채권신고처 : 상속인 김윤숙의 주소

先州日報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